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강영식*, 오경숙**, 김지영*, 박진영*, 백수진*, 정하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국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e-mail: godisback2@nate.com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support for autonomy and early childhood playfulness

Young-Sik Kang,* Kyeong-Sook Oh**, Ji-Young Kim*, Jin-Young Park*, Su-Jin Bark*, Ha-Yeon Jeo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 수준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D시, C시, S시) 영유아교사 62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사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하위변인 중 '이해와 흥미 증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선택권 부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영유아의 놀이성 수준은 하위변인 중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인지적 자발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는 영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놀이성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역할에 시사점을 주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Key Words : 교사의 자율성 지지, 영유아 놀이성

1. 서론

최근 시행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은 교사 주도가 아닌 영유아중심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습을 강조하는 풍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이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적으로 영유아에게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1].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으로서 유아들의 삶이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2]. 놀이는 유아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놀이를 통해 주변세계를 접촉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표출하게 하여 유아의 발달-신체, 사회, 인지, 언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3]. 놀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갖게 되는 기본적인 목적인 동시에 수

단이 된다[4].

이와 같이 유아의 놀이가 중요함에 따라 유아가 놀이를 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인인 놀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놀이보다 놀이성을 더 중요하게 보았는데, 놀이성은 유아 자신이 속해있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느낌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감정이입을 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태도나 성향을 말한다. 또한 Barnett(1990)은 놀이성을 아동 개인이 놀이를 일으키는 내적인 성향으로 보고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총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5].

유아의 놀이성에 기반을 둔 놀이 발달은 외부환경이 미치는 영향력과 교사, 부모의 영향력이 강할 때보다 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했을 때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6],[7]. 이에 유아의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교사 특성이 좀 더 관

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6]: [8])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유아들의 놀이가 보다 더 교육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놀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역할 중 영유아가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지적 역할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perceived autonomy support)는 교사, 부모,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 선택의 기회, 문제해결, 의사결정 참여, 인정 등을 영유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9]. 이는 영유아는 자신과 가까운 양육자들로부터 자율성지지를 인지할수록 관심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게된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이들의 동기유발에 필요한 교육적인 요소로서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결정하여 자신의 개별적인 흥미나 욕구 및 발달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놀이와 관련이 있다. 자유놀이는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때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영유아가 놀이를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자율감과 책임감을 기르는 기회가 되며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박혜영[5]의 연구를 통해 관련된 결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의 자율성지지만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 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역할에 시사점을 주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영유아의 놀이성 수준은 어떠한가?
- 셋째,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지역(D시, C시, S시)에 위치한 영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62명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62)

변인	n	%	
연령	30세 미만	21	33.9
	30세~35세 미만	27	43.5
	35세 이상	14	22.6
최종 학력	2, 3년제 대학 졸업	24	38.7
	4년제 대학교 졸업	28	45.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0	16.1
근무하는 기관	어린이집	36	58.1
	유치원	26	41.9
경력	5년 미만	15	24.2
	5년~10년 미만	24	38.7
	10년 이상	23	37.1
	전체	62	100.0

2.2 연구도구

2.2.1. 교사의 자율성 지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설문(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도구를 이석주[1]가 수정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택권 부여, 이해와 흥미 증진, 비판수용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86이었고, 하위요인 중 '선택권 부여'는 .783, '이해와 흥미 증진'은 .752, '비판 수용'은 .758이었다.

2.2.2. 영유아의 놀이성

영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해열(1994)이 번안한 Barnett(1990)의 영유아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이석주[1]가 수정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 감각(5문항) 5개의 하위 요인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계수

하위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자발성	4	.656
사회적 자발성	5	.687
인지적 자발성	4	.427
즐거움의 표현	5	.639
유머감각	5	.681
전체	23	.910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23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충남지역(D시, C시,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설문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66부의 설문자료 중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62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2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교사의 자율성지지 수준

[표 3] 교사의 자율성지지, 영유아 놀이성 평균과 표준편차

(N=62)

변인	점수범위 (최저~최고)		M	SD
	선택권 부여	이해와 흥미 증진		
교사의 자율성 지지	2.86	4.86	4.05	.47
	3.00	5.00	4.17	.47
	2.57	5.00	4.00	.48
전체	2.94	4.94	4.06	.41

[표 3]과 같이 교사의 자율성 지지 수준은 전체 평균(M=4.06, SD=.41)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변인 중 '이해와 흥미 증진'(M=4.17, SD=.47)가 '선택권 부여'(M=4.05, SD=.47)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2 영유아 놀이성 수준

[표 4] 교사의 자율성지지, 영유아 놀이성 평균과 표준편차

(N=62)

변인	점수범위 (최저~최고)		M	SD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영유아 놀이성	2.50	5.00	4.13	.57
	2.80	5.00	4.10	.56
	2.75	5.00	4.07	.53
	3.00	5.00	4.20	.50
	3.20	5.00	4.09	.58
전체	3.09	5.00	4.12	.48

다음으로 영유아 놀이성 수준은 전체 평균(M=4.12, SD=.4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위변인 중 '즐거움의 표현(M=4.2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자발성(M=4.13)', '사회적 자발성(M=4.10)', '유머감각(M=4.09)', '인지적 자발성(M=4.07)' 순으로 나타났다.

3.3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영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영유아 놀이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영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

(N=62)

변인	선택권 부여	이해와 흥미 증진	비판 수용	자율성 지지 전체
신체적 자발성	.428**	.435**	.263*	.419**
사회적 자발성	.399**	.408**	.431**	.476**
인지적 자발성	.356**	.368**	.302*	.387**
즐거움의 표현	.419**	.403**	.441**	.488**
유머감각	.421**	.424**	.349**	.452**
놀이성 전체	.458**	.462**	.409**	.505**

**p<.01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영유아 놀이성 전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05 p<.01).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영유아 놀이성 하위요인중 즐거움의 표현(r=.488, p<.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자발성(r=.476, p<.01), 유머감각(r=.452, p<.01), 신체적 자발성(r=.419, p<.01), 인지적 자발성(r=.387, p<.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놀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선택권 부여는 영유아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r=.428, p<.01$), 사회적 자발성($r=.399, p<.01$), 인지적 자발성($r=.356, p<.01$), 즐거움의 표현($r=.419, p<.01$), 유머감각($r=.42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이해와 흥미 증진은 신체적 자발성($r=.435, p<.01$), 사회적 자발성($r=.408, p<.01$), 인지적 자발성($r=.368, p<.01$), 즐거움의 표현($r=.403, p<.01$), 유머감각($r=.42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비판 수용은 사회적 자발성($r=.431, p<.01$), 즐거움의 표현($r=.441, p<.01$), 유머감각($r=.34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선택권부여와 이해와 흥미 증진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놀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 발달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역할에 시사점을 주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놀이성의 수준을 알아보고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놀이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지지 하위 변인 중 ‘이해와 흥미 증진’이 더 높은 수준임을 볼 때, 유아의 놀이 지원자료서의 역할을 할 때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하려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놀이성 수준은 보편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즐거움의 표현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 순 이었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영유아의 놀이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지지 하위 변인 중 ‘선택권 부여’가

낮은 것으로 보아 영유아의 놀이를 지도할 때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선택권을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충남 지역의 D시와 C시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영유아 놀이성 모두 설문지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 관찰, 면접,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석주, “영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의 자율성지지 간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년.
- [2] 이진화, 박혜경,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과 놀이에 대한 교육신념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제 24권 1호. pp. 57-689. 2020년.
- [3] 신은수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놀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 2권, 1호, pp.27-43. 2000년.
- [4] 박은아,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상징놀이 능력과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5] 박혜영, “유아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놀이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년.
- [6] 서지은, “영아교사의 놀이신념, 놀이교수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년.
- [7] 이재진, “유아 교사의 놀이신념, 놀이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 [8] 신은경,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능력 인식과 교사효능감과 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9] 김은덕,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년.